

실업자의 자살생각 영향요인*

김혜영** · 김희숙***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연도별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2003년, 2009년에 각각 전년대비 자살 증가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 시기는 IMF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은 경제적 위기 발생으로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Kim, Jung, & Kum, 2011). 실업은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생활사건으로 개인의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우울감을 증대시켜 자살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Blakely, Collings, & Atkinson, 2003). 많은 연구에서 자존감은 자살생각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으며 낮은 자존감은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Wilburn & Smith, 2005). 또한 실업 후 취업의 불확실성에 의해 유발되는 취업불안은 대표적인 부정적 심리 특성 중의 하나로 자살생각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Kim & Choi, 2012). 실업과 같은 스트레스는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Tak, 2010) 자살생각이 있는 대상자가 신체화 증상

을 더 많이 호소하였다(Nakao, Yamanaka, & Kuboki, 2002).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Kim et al., 2011), 실업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전부 자살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실업이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나름의 대처방안을 찾게 되는데 이러한 대처방식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문제중심대처는 문제상황을 직면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한 객관적인 문제해결방법으로(Choi & Chung, 2004), 문제중심대처방식을 적게 사용할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Nam, & Jung, 2016).

실업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사건의 심각성에도 영향을 받지만 가족의 대처자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가족의 지지는 개인이 혼자 대처하기 쉽지 않은 스트레스 사건을 해결하도록 힘을 부여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Beak, 2013).

이처럼 실업의 경험은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존감, 불안 등에 영향을 미쳐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겪게

* 본 연구는 김혜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

*** 경북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교신저자 E-mail: hskim8879@knu.ac.kr)

• Received: 30 March 2016 • Revised: 4 April 2017 • Accepted: 13 April 2017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Hee-Sook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680, Gukchaebosang-ro, Jung-gu, Daegu, Korea

Tel: 82-53-420-4927 Fax: 82-53-422-4926 E-mail: hskim8879@knu.ac.kr

되고, 이러한 경험은 실직상황으로 인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실업의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황에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실업에 대한 개인의 대처방식과 가족의 지지에 따라 달라지며,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실업으로 인한 자살생각 영향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실업에 대한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자살생각 연구(Jin, 2006), 사회적 지지와 가족지지가 실업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Beak, 2013)로,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두 요인 간 상관관계만 파악하였으며, 실업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업자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실업자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자살예방 중재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자살생각, 자존감, 신체화, 취업불안상태, 문제중심대처 및 가족지지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살생각과 자존감, 신체화, 취업불안상태, 문제중심대처, 가족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실업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5세 이상의 노동인구 중 한 번 이상의 취업 경험을 가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현재는 실업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하여 G시에 소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사람들이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수는 G*power 3.1.9 analysis software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시 유의수준(α) .05, 효과크기(effect size) .15, 검정력($1-\beta$) .95를 기준으로 독립변수 5개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표본크기는 최소 138명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55명의 대상자를 최종 목표 인원으로 임의 표집 하였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사전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하였으며 25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응답이 불완전한 48명을 제외한 207명을 최종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자살생각 척도는 Reynolds (1987)의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를 Sin (1993)이 번안한 것을 Park (2006)이 요인분석과 전문가 6인의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1년간 자살생각에 대한 빈도를 측정하며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생각한 적이 없다' 0점에서 '거의 매일 생각한다' 6점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전체 점수 범위는 0점에서 8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 (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 자존감(Self-esteem)

자존감 척도는 Rosenberg (1965)의 Self-Esteem Questionnaire(SEQ)를 Jun (197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까지이며, 부정문항 3번, 5번, 8번, 9번과 10번은 역코딩하였다. 전체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Jun (197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3) 신체화(Somatization)

스트레스 반응척도는 Koh, Park과 Kim (2000)에 의해 국내에서 개발된 것을 Choi, Kang과 Woo (2006)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주일 간 경험한 스트레스 반응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은 신체화 9문항, 우울 8문항, 분노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화 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아주 그렇다' 4점까지 5점 Likert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3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i, Kang과 Woo (2006)의 연구에서 신체화의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4) 취업불안상태(Job-seeking anxiety status)

취업불안 척도는 Jo (2008)가 개발한 취업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업불안유발상황 11문항, 취업불안유발원인 7문항, 취업불안상태 10문항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불안상태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Jo (200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95이었다.

5) 문제중심대처(Problem-focused coping)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는 Lazarus와 Folkman (1984)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토대로 하여 Kim (1987)이 번안하고, Jo (1999)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은 문제중심대처 12문항, 정서중심대처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중심대처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해당 없음' 0점에서 '아주 많이 사용' 3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전체 점수 범위는 0점에서 3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중심대처가 높음을 의미한다. Jin (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85이었다.

6) 가족지지(Family support)

가족지지 척도는 Cobb (1976)이 개발한 가족지지 척도를 Kang (198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을 부여하였으며, 부정문항 6번과 7번은 역코딩하였다. 전체 점수 범위는 11점에서 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ang (1984)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92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6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보호와 연구진행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IRB 승인번호: 2014-0046)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설문지에 자의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중도포기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목적 이외에는 수집된 자료가 사용되지 않음과 기록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므로 조사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에 대해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동의서를 통해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관한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개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이 끝난 후 현지에서 본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의 소요시간은 15분 정도였으며 설문응답에 대해 소정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처리 및 분

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빈도와 백분율, 연구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 검증은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자살생각과 각 변수들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은 다중공선성, 잔차, 특이값 등으로 진단하였고, 대상자의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결혼 상태에서 미혼인 경우 자살생각이 평균 9.8(± 12.56)점으로, 기혼·동거의 경우 평균 4.2(± 7.48)점, 별거, 이혼, 사별 및 기타의 경우 평균 7.0(± 9.3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F=6.17$ $p=.002$).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자살생각은 평균 7.3(± 10.76)점으로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3.1(± 5.16)점보다 높았다($t=11.68$ $p=.001$). 그 외 성별, 연령, 종교, 학력, 부양가족 수, 실업 전 직업 종류, 실업 전 월평균 수입, 실업급여, 단직 후 경과기간, 실업횟수, 실업 이유, 자살예방 교육의 필요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자살생각, 자존감, 신체화, 취업불안상태, 문제중심대처 및 가족지지

실업자의 자살생각 평균 점수는 5.5(± 8.94)점이며, 자존감은 평균 29.0(± 4.98)점, 스트레스 반응의 하위영역인 신체화는 평균 12.1(± 8.15)점이었으며, 취업불안의 하위영역인 취업불안상태는 평균 24.8(± 8.40)점,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영역인 문제중심대처는 평균 16.6(± 5.88)점, 가족지지는 평균 42.1(± 9.31)점이었으며(Table 2).

3. 연구변수들 간 상관관계

실업자의 자살생각은 스트레스 반응의 하위영역인 신체화($r=.361$, $p<.001$), 취업불안의 하위영역인 취업불안상태($r=.363$,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존감($r=-.353$, $p<.001$), 가족지지($r=-.433$, $p<.001$)와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4.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

실업자의 자살생각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에 자존감, 신체화, 취업불안상태, 문제중심대처, 가족지지와 일반적 특성 중 자살생각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던 결혼상태와 배우자의 소득을 투입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배우자의 소득(있음=1)은 더미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차 한계(tolerance)는 .745~.846으로 0.1이상 이었고,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82~1.343으로 기준인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의심되지 않았다. 잔차들의 정규성 분포여부를 확인하는 Durbin-Watson은 2.107로 나타나 2에 가까워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었다. 실업자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으로는 가족지지($\beta=-.03$, $p<.001$), 신체화($\beta=.22$, $p=.001$), 배우자의 소득(있음)($\beta=-.18$, $p=.003$), 자존감($\beta=-.14$, $p=.0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의 자살생각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21.12$, $p<.001$), 전체 설명력은 28.2%이었다(Table 4).

IV. 논 의

본 연구는 실업자의 자살생각 정도를 파악하고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실업자의 자살예방간호중재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Suicidal Ideation by Characteristics

(N=20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t or F	<i>p</i> Scheffe
Gender	Male	61(29.5)	6.05(±9.11)	0.33	.565
	Female	146(70.5)	5.26(±8.91)		
Age	20-29	19(9.2)	8.00(±12.78)	0.75	.558
	30-39	35(16.9)	4.80(±6.91)		
	40-49	55(26.6)	6.36(±9.18)		
	50-59	68(32.8)	4.53(±8.58)		
	≥60	30(14.5)	5.30(±8.78)		
Religion	Yes	120(58.0)	4.94(±8.57)	1.08	.299
	No	87(42.0)	6.25(±9.46)		
Education	≤Middle school	40(19.3)	4.80(±9.43)	1.14	.321
	≤High school	118(57.0)	6.28(±9.62)		
	≥college	49(23.7)	4.14(±6.51)		
Marriage	Single ^a	33(15.9)	9.85(±12.56)	6.17	.002 a)b,c
	Married/Living together ^b	144(69.6)	4.18(±7.48)		
	Separate/Divorce/ Bereaved/Others ^c	30(14.5)	7.00(±9.31)		
Caregiving family (numbers)	0	60(29.0)	6.37(±10.47)	0.48	.691
	1~3	124(59.9)	5.00(±7.96)		
	≥4	23(11.1)	5.83(±9.92)		
Spouse income	Yes	92(44.4)	3.17(±5.16)	11.68	.001
	No	115(55.6)	7.34(±10.76)		
Occupational category before unemployment	Production · Technical	79(38.2)	5.18(±9.27)	0.13	.985
	Sales · Service	37(17.8)	5.59(±6.48)		
	Office · Administrative	20(9.7)	6.35(±11.12)		
	Temporary	19(9.2)	5.36(±7.06)		
	Teacher · Specialized others	23(11.1) 29(14.0)	4.74(±8.91) 6.28(±10.79)		
Income before unemployment (million won/month)	<100	40(19.3)	5.33(±8.82)	1.15	.331
	101~200	123(59.4)	5.72(±8.97)		
	201~299	26(12.6)	7.04(±10.61)		
	≥300	18(8.7)	2.11(±5.85)		
Unemployment benefits	Yes	144(69.6)	5.15(±8.86)	0.68	.410
	No	63(30.4)	6.27(±9.18)		
Period after quitting a job (month)	≤6	161(77.8)	5.05(±8.41)	0.95	.388
	7~12	30(14.5)	6.70(±11.14)		
	≥13	16(7.7)	7.69(±9.78)		
Unemployment (numbers)	1	71(34.3)	5.41(±9.42)	0.09	.968
	2	68(32.8)	5.31(±9.14)		
	3	37(17.9)	6.16(±9.15)		
	>4	31(15.0)	5.29(±7.44)		
Cause of unemployment	Personal circumstances	39(18.8)	5.08(±8.34)	1.31	.263
	Dismissal	22(10.6)	5.59(±7.01)		
	Bankruptcy	42(20.3)	6.71(±10.65)		
	Resignation	43(20.8)	7.21(±10.33)		
	Retirement	26(12.6)	2.04(±5.09)		
	Others	35(16.9)	4.89(±8.66)		
Learning needs on suicide prevention	Yes	106(51.2)	6.01(±9.46)	2.70	.069
	Usual	41(19.8)	7.24(±9.44)		
	No	60(29.0)	3.37(±7.28)		

Table 2. Descriptive Data of Major Variables

(N=207)

Variables	Min	Max	Mean	SD
Suicidal ideation	0	44	5.5	8.94
Self-esteem	16	40	29.0	4.98
Somatization	0	30	12.1	8.15
Job-seeking anxiety status	10	45	24.8	8.40
Problem-focused coping	0	34	16.6	5.88
Family support	18	55	42.1	9.31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07)

Variables	Self-esteem	Somatization	Job-seeking anxiety status	Problem-focused coping	Family support
Suicidal ideation	-.353	.361	.363	.057	-.433
r(p)	(<.001)	(<.001)	(<.001)	(.414)	(<.0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Suicidal Ideation

(N=207)

Variables	β	t	p	R ²	Adjusted R ²	F(p)
Family support	-.294	-4.401	<.001	.296	.282	21.117(<.001)
Somatization	.221	3.473	.001			
Spouse income*	-.179	-3.013	.003			
Self-esteem	-.140	-2.054	.041			

Durbin-Watson=1.321, Tolerance=.745~.846, VIF=1.182~1.343

* Dummy variables (no=0, yes=1)

본 연구 대상자의 자살생각 평균점수는 5.5점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Choi (2012)의 22.4점보다 낮았다.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은 심리적 어려움으로 자살생각이 높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본 연구의 자살생각 평균점수는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실업상태에 있으나 69.6%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로,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대상자가 현재의 실업상태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자살생각으로 전개되는데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7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취업을 한 경우, 혼자 가정의 생계를 담당하기보다는 맞벌이를 하며 가계에 추가적인 수입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상황은 실업상태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가정의 생계에 대한 책임감과 심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살생각이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실업자는 실업상황에서 좌절감을 갖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 저하, 저소득계층으로의 사

회적 지위 하락 등이 동반되어 자살생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남성에게 대한 실업자의 자살 위험도를 평가하여 중재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존감 평균점수는 29.0점으로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Cha 등(2012)의 28.0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직업은 경제적 기능 이외에도 개인에게 사회적 지위와 자아정체성을 제공한다. 직업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충족시켜오던 사회참여의 기회가 실업으로 인해 박탈당하게 되면 개인은 자신에 대해 가치없음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신체화 평균점수는 12.1점으로 남성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Kim, Park과 Oh (2014)의 20.9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두 그룹은 연령분포는 비슷하지만 대상군의 남·녀 분포 차이로 인하여 평균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집안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

성의 경우 부가적인 수입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인 신체증상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불안상태의 평균점수는 24.8점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 (2012)의 25.8점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실업자에서 취업불안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ark (2013)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취업불안이 자살생각과 높은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실업은 구직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고 이는 취업불안을 심화시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중심대처의 평균점수는 16.6점으로 실직가장을 대상으로 한 Jo (1999)의 16.5점과 비슷하였다. 상황에 대한 인지된 통제능력은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중심대처방식은 개인이 직접 문제되는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적 조건을 조정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Choi & Chung, 2004), 자살예방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지지의 평균점수는 42.1점으로 실업자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다는 연구(Jin, 2006)와 일치하였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위기상황은 가족 전체의 일로서 가족이 대상자에게 자원을 보다 많이 제공함으로써 가족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은 결혼상태,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미혼인 경우가 기혼, 동거인 경우나 별거, 이혼, 사별, 기타인 경우보다 자살생각이 높았다. 이는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살생각 관계를 분석한 Beak (2013)의 연구에서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혼자 사는 실업자가 가족 또는 부부가 함께 사는 실업자에 비해 자살생각의 평균점수가 훨씬 높게 나왔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Park과 Choi (2013)의 연구에서는 이혼하거나 별거 중인 집단이 자살생각이 가장 높았으나, 다변량 분석결과 미혼만이 성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이 개인에게 있어서 유력한 지지체계이며, 지지체계로서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위기를 조절하도록 돕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자살생각은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생각을 알아본 연구에서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자살생각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Kim et al., 2014).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생계위협으로 인한 생활유지의 어려움, 가계부채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증가한 결과라 사료된다.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에 놓인 근로자들은 실업으로 인한 재정적 곤란과 심리적 어려움으로 자살생각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본 연구 대상자는 실업급여라는 제도적 도움과 여성이 70.5%로 가정 내 부가적인 수입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 자살생각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자가 가정 내 주 수입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결과(Park & Choi, 2013)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업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반적 특성, 자존감, 신체화, 취업불안상태, 문제중심대처, 가족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한 결과, 가족지지, 신체화, 일반적 특성 중 배우자의 소득, 자존감 순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을 28.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족지지는 자살생각에 가장 설명력이 큰 요인으로 자살생각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청년 실업자에서 가족지지와 우울이 부적 상관관계를 가졌고(Im & Kim, 2005), 우울이 자살의 전조단계로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Park, 2010)를 통해, 가족지지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의 추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실업자들이 가족지지와 같은 지지에 기반한 대처자원이 충분하면 실업에 따른 부정적인 반응이 적을 수 있으며 자살생각이 감소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실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생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지가 중요함을 이해시키도록 교육 및 상담적 접근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실업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신체화인데 이는 자살생각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실업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고용불안이 확산된 요즘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실업위기에 대한 조조와 불안, 두려움의 상태가 지속되며,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은 실업이 촉발요인

이 되어 문제를 심화시킨다. 스트레스 반응 중 하나인 신체증상이 많을수록 실직자의 자살생각은 높게 나타났다(Kim, Park & Oh, 2014). 실업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자살생각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소득하위계층일수록 자살생각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Park & Choi, 2013)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실업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존감은 자살생각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존감은 자살생각과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Kim, 2012). 자존감은 개인의 발달적 변화와 적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실업이라는 현실에 적응하려는 동기를 부여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제해결을 이끈다. 자존감 향상 훈련 프로그램은 개인이 가진 긍정적이고 건강한 가치를 높여 자살생각을 줄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실업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지지, 신체화, 배우자의 소득 있음, 자존감임을 알 수 있다. 고용불안이 심해지는 시대상황에서 실업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살고위험군인 실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족지지가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가장 큰 변인이었다. 그러므로 실업자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지지를 높이는 중재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인 자존감을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자살생각 영향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자살생각이 자살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실업자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존감, 문제중심대처, 가족지지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의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지역사회에서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일개 지

역 고용센터의 실업자들을 임의표집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실업자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실업자의 자살생각과 관련변수들에 대해서 전국규모의 확률적 표집에 의한 자료가 수집된다면 우리나라 실업자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에 대해서 더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불안으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상태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긍정적 대처인 문제중심대처 정도를 알아보고자 변수로 채택하였으나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고용보험가입자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감소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대상자이다. 이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제도적인 경제적 지원은 취업불안상태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 대상자들이 재취업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제공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상태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소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는 실업자로 재취업을 위해 일 지역 고용센터에서 이용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보았다.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가족지지와 신체화 증상이었고, 일반적 특성에서는 배우자의 소득과 자존감이었다. 그러므로 실업자들의 자살생각은 자존감 저하와 신체적 증상 증가, 배우자의 수입이 있는 경우가 영향을 미치며, 실업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는 단절되어도 가족지지가 있을 경우 실업자의 자살생각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실업자의 신체화 증상 호소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자존감과 가족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는 G시 고용센터의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실업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탐색을 위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Beak, K. D. (2013). *A study on the impacts of support from society and family on the suicidal ideation of the unemploy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il University, Gyeongsan.
- Blakely, T. A., Collings, S. C. D. & Atkinson, J. (2003). Unemployment and suicide. evidence for a causal association?.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57*(8), 594-600. <http://dx.doi.org/10.1136/jech.57.8.594>
- Cha, M. J., Park, S. Y., Song, H. J., & Noh, Y. H. (2012). The effect of collectivism on anxiety perception and mental health in youth unemployment.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8*(1), 27-51.
- Choi, S. A., & Chung, H. H. (2004). The path analysis among dysfunctional attitude, stress perception, coping stress perception, coping style and stress-related disorder variable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5*(2), 353-366.
- Choi, S. M., Kang, T. Y., & Woo, J. M.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odified form of the stress response inventory for workers.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5*(6), 541-553.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http://dx.doi.org/10.1097/00006842-197609000-00003>
- Im, S. Y., & Kim, T. H. (2005).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family support on depression of unemployed youth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0*(1), 51-7.
- Jo, G. P. (2008). A study of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job-seeking anxiety test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6*(2), 53-75.
- Jo, S. H. (1999). Influencing factors on the probability of break-up in famil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employed breadwinne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13*(1), 139-166.
- Ju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The Journal of Yonsei University, 11*(1), 107-130.
- Jung, B. A. (2012). *The effect of H-CIP career group counseling 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 level and job-seeking anxie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 Jin, E. Y. (2006). *The effect of the ways of coping with unemployment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suici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Kang, H. S. (1984).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s of reinforcement education for rehabilitation on hemiplegia patients' self-care activ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H. S., Nam, C. Y., & Jung, H. O. (2016). Validation of a path model on the suicide ide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0*(3), 381-394. <http://dx.doi.org/10.5932/JKPHN.2016.30.3.381>
- Kim, E. J., & Choi, K. W. (2012). The relationships among job-seeking anxiet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2*(5), 351-352.
- Kim, H. S., Park, G. R., & Oh, S. T. (2014).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in the unemployed. *The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18*(2), 34-43.
- Kim, M. K. (2012). Relationship between

- negative emotions, family resilience, self-esteem and suicide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17(1), 61-83.
- Kim, M. Y., Jung, K. H., & Kum, H. S.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economic crisis and suicidal rate: the focusing on gender, age, suicidal rate of 15 city and province.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21(3), 273-302.
- Koh, K. B., Park, J. K., & Kim, C. H. (2000). Development of the stress response inventory.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9(4), 707-719.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http://dx.doi.org/10.1017/s0141347300015019>
- Nakao, M., Yamanaka G., & Kuboki T. (2002). Suicidal ideation and somatic symptoms of patients with mind/body distress in a japanese psychosomatic clinic.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32(1), 89-90. <http://dx.doi.org/10.1521/suli.32.1.80.22179>
- Park, B. K. (2006). Adolescents'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suicidal ideation.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Social Work*, 10, 41-76.
- Park, E. O., & Choi, S. J. (2013). Prevalence of suicidal ideation and related risk factors among Korean adul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2(2), 88-96. <http://dx.doi.org/10.12934/jkpmhn.2013.22.2.88>
- Park, H. J. (2013).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ment stress and the suicidal ideation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Ulsan. Ulsan.
- Park, J. Y. (2010). *Adolescent suicidal crisis and resil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Reynolds, W. M. (1987).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Rosenberg, Morris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ess.
- Tak, J. K. (2010). Mental health change of various types of subgroups based on unemployment and reemployment status: a longitudinal Stud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5(4), 687-698. <http://dx.doi.org/10.17315/kjhp.2010.15.4.007>
- Wilbum, V. R., & Smith, D. E. (2005). Stress,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in late adolescents. *Adolescence*, 40(157), 33-45.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of the Unemployed*

Kim, Hye Young (Doctoral Candidate, Graduate School,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im, Hee Sook (Professor,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the suicidal ideation of the unemployed. **Methods:**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207 unemployed individuals from G city those who were participating in activities in a job center. A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13 to September 21, 2014. Research tools were suicidal ideation, self-esteem, somatization, job-seeking anxiety status, problem-focused coping, and family support.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2.0, and included th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by stepwise selection were also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Results:** Suicidal ideation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marital status and spouse income. Suicidal ide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omatization and job-seeking anxiety status,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and family support. Effective variables were family support ($\beta = -.03, p < .001$), somatization ($\beta = .22, p = .001$), spouse income (Yes) ($\beta = -.18, p = .003$) and self-esteem ($\beta = -.14, p = .041$). These variables explained 28.2% of the variance in suicidal ideation.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family support improvement programs to decrease suicidal ideation of the unemployed.

Key words : Unemployment, Suicidal ideation

* This article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